

대가 - 너희 십자가를 지라(답 없는 내 실상을 예수 십자가에 잇대다)

마태복음 11장 28-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کمپاشن’ (공휼)이라는 단어의 유래는 라틴어 ‘com’ (함께)와 ‘passio’ (고난당하다)라는 말이 합하여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공휼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고난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고난이든 세상의 누구의 고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공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쿰’ (rachuw)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 ‘자궁’을 뜻하는 ‘레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아와 고난까지도 함께 겪으시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유명한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대개 인물화를 중심으로 그렸던 그에게 바다 풍경의 그림은 좀 낯설게 느껴지지만 빛과 어둠을 통해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잘 드러나는 그림입니다.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렘브란트는 풍랑가운데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드러다 보면, 예수님과 열두 제자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의 모습을 작품 속에 그려 넣으면서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와 그 위를 위태롭게 항해하는 배 에는 예수님이 타고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빛으로,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을 어둡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실존의 문제는 바로 이 풍랑 이는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가장 적절한 답이죠.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지만 이 부르심은 단순한 쉬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쉬이며, 자신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삶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 길을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보시고 가슴이 미어지듯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즉, 그분의 공활이 생명을 살리는 원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사건의 중요함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의 고통은 당신의 아픔처럼 느끼셨다는 점입니다.

즉, 그 여인의 고난에 연합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활하심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품고 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도 누군가의 고난을 볼 때 공활히 여기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과 아픔을 보기 시작할 때, 그들 속에서 함께 고통당하시는 주님의 공활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인류가 지나온 역사를 볼 때, 그 안에 스며든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때마다 그분의 부활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가만히 우리들의 일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면서 접하는 소식들, 그것이 신문을 통해서든 방송을 통해서든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날, 아침 신문의 톱을 장식한 것은, 한강변에서 죽은 어느 의대생의 이야기, 그리고 사상 최대의 희생자를 내고 의료체계가 붕괴된 인도의 코로나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매주일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화가 나지는 않는가요?

매 주일 설교시간을 통해 듣는 말씀도 어떤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문제투성인들이 아니었던가요?

솔직한 우리의 감정.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과 고난들 속에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공황’이라기보다 분노 혹은 무감각, 어쩌면 불쾌감 같은 것일지 모릅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는 않는가요?

그런데 실상은 이렇게 뉴스거리에 등장하는 거대한 문제들 보다는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들로 인하여 더욱 힘들고 짜증이 납니다.

늘상 대하는 교통 체증,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개념 없는 사람들의 주차 행태, 주변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한 사람들의 일상 같은 것들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상들이 우리 속에 쳐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일상처럼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세들이 세계정세를 고민하다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짓누름에서 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또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 문제는 이 문제만 해결되는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던 손님처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만의 것’ 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있고, 자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들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커다란 십자가 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십자가들이 훨씬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힘겹게 느껴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 무거운 짐과 십자가를 나 혼자 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 하셨고,

마태복음 11장 29-30절에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놀라운 신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가 십자가와 고뇌를 없애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고 있는 것들을 그분의 것과 연결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초대는 아마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심오한 차원의 부름일 것이다. 공홀이란 주님만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도록 초대받았다는 뜻이다.”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무거운 짐으로 힘겨워할 때마다, 그 고난으로 몸부림치며 아파하셨던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짐이 가벼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의 고난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일부러 고통의 문제를 찾아서 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만으로도 충분하니, 다른 고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문제와 거대한 십자가가 아니라, 삶의 거의 매순간마다 우리들이 감내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목사로서 누군가에게 소홀히 한 것이 생각난다면, 지금 이시간이 조금 힘겨워도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 혹은 어머니 혹은 자녀로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문제를 직면하고 화해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간의 우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상처를 무시하지 말고 치유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은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일부러 만들어 내거나 애써 찾아다니라 하지 않으시고 그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다. 이는 자신의 고통을 들여다 볼 용기를 가지라는 말씀

이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큰 아픔을 당한 성도들을 보면서, 그 아픔 앞에서 의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생각하기도 싫은 비극적인 일을 앞에 두고 빨리 잊어야 한다고 권면해야 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쓰라린 고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풍습 중에 ‘3년 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어쩌면 3년 동안 무덤을 지키며 그 슬픔과 고통을 온전히 담아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부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아픈 부분은 내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고통이라고 우리의 삶에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래도 내 몫이니 받아들일 것이다. 고통을 계속 무시하다가는 삶의 기쁨마저 잃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먼저’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도 나를 따르는 제자도의 일부니 네 십자가를 나와 연결하라. 이 모든 짐을 하나님의 길과 연결하라.”

아픔을 인정하면 진정한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고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웬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참으로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의 눈길은 상처에 머물지 않고 사랑의 대상에게 머문다.”

하현:

아파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파 본 적이 있다. 아플 때를 기억하면 정말 오롯이 내 자신의 감각과 생각에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집중의 결과로 더 아파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오늘 책을 통해, 아픔을 인식했다면 그 아픔에 집중하기보다, 사랑의 대상에 집중하라고 한다. 그리고 또 아픔을 피하기 위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더욱 사랑의 힘으로 나아가라고 한다. 그것이 우리의 ‘대가’, 우리가 행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부분을 읽고, 내가 아픈데 과연 그렇게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았다. 조금 더 잠잠히 생각해보니, 내가 아팠을 때 더욱 낮아지고 주님을 가까이하려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 비록 아픈 것이 싫어서, 두려워서였지만,,,

예수님을 우리를 강권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치유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러한 무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와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너무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주님 안에 있고 싶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기도에 대하여 헨리 나우웬을 이렇게 모범을 제시합니다.

“주님, 제 몸이 아픕니다. 이 고통을 위사가 왜 해결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몸이 고통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이며 그 몸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의 상처 속에 제 상처도 있음을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상처 때문에 원망과 분노와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상처 덕분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에 눈뜨게 하소서.

제 전 존재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고뇌와 고통까지 다 가져왔으니 제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 되게 하소서. 제 집이 곧 주님의 집이 되는 이 경험이 저를 새로운 생명과 희망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

이러한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초월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신의 염려를 기도로 전환하라.

당신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두려움과 연결하라.

당신의 우울을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라.

그분이 모든 고난을 살아 내셨으니 그 분 앞으로 가져가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고통과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을 초월하여 살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기도하면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삶과 연결된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은 ‘제자의 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따른다면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만일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주님을 잉태함 마리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에서도 천사들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친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 14: 27)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은 요한 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뚫고 우리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복은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물음과 세 번의 대답을 통해 주님은 베드로에 양을 맡기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의 뜻을 헨리 나우웬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가 정말 사랑 안에 있으면 스스로 택하지 않은 곳이라도 능히 남에게 이끌려 갈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도 갈 수 있다.”

이 해석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영적 삶이란, 그렇게 남에게 이끌려 원하지 않는 험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것은 십자가였고, 베드로에게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면서 ‘고통을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방식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의 눈길은 상처에 머물지 않고 사랑의 대상에게 머문다. 우리는 그저 한 걸음 또 한 걸음 매 순간에 충실할 뿐이다. 부모는 아픈 자녀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 사랑하는 아이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사람들은 아픈 자녀를 지키는 부모를 보고 큰 고통 속에 있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고통 속에서도 자녀의 곁에 남을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사랑 안에 있으면 아무리 험한 곳으로 가도 고통이 사랑을 앞서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를 질 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 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 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 속에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 옛날 우리 어른들이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쁘게’ 불렀던 찬송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370장

1)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댄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되었네
 3)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주시네
 4)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혹시 우리 주변에 죽음을 지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병이 깊은 자녀를 평생 돌보며 곁을 지켜야 하는 부모들,

그리고 불의의 사고를 당한 배우자를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밖에서 보니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지 상상도 되지 않고 두렵기 까지 합니다. 혹시, 저런 일이 나에게 닥치면 어떻게 하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요?

“다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 두려움과 고통보다는 함께하는 기쁨이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것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 자기희생의 십자가

	<p>아버지의 희생</p> <p>https://youtu.be/X733Of9p_7M</p> <p>버티칼 리미트(映) 중</p>
---	---

(요약) 산악을 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딸 애니. 위쪽에서 아마추어 산악인들이 산을 오르다 떨어질 위기에 처하고, 로프가 연결되어 아버지와 두 자녀 또한 위험에 처한다. 딸 애니의 로프가 묶인 캠만이 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애니의 로프에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다.

허둥대며 몸부림을 치는 아마추어 산악인들 때문에 캠은 점점 벽에서 떨어져나오고, 결국 산악인들은 추락한다. 아버지와 두 자녀가 추락할 위기에 처하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칼로 자신과 연결된 로프를 자르라고 말한다. “아무도 널 비난할 수 없어”라고 하며 아들을 설득하고, 아들은 결국 로프를 자르고 동생과 자신의 목숨을 구한다.

* 요 12:24~25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 희생의 즐거움, 주나최 2/24

- 희생의 즐거움이란 나의 ‘친구’(예수님)를 위해 나의 목숨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단번에 목숨을 내던진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주님 및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분을 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발털이개**’가 되는 비결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 바울이 헌신하는 동기는 예수님과 사랑이었습니